

전북인자위, ‘산업구조 변화를 기회로’

‘2025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차 공모 시작

전북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2025년 제2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전북지역 내 산업·고용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훈련공급기관과 훈련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전북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 육성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과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전북인자위가 선정한 지원대상 산

업·직종 및 육성산업 분야에서 고용 유지·전직·취·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주요 공모 대상이다. 지원대상산업·직종은 건설업, 자동차 부품산업, 식품산업이며, 육성산업·직종은 스마트농생명/라이프케어,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이차전지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훈련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고급·특수과정은 최대 NS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된다.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초 1회 훈련비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공모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준법성이나 재정 건전성 등 일정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이미 운영 중인 훈련과정과 중복되는 과정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2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인자위 홈페이지(www.jbt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이미 500명 이상의 인원이 승인되어 관련 과정이 운영 중이다. 전북인자위는 이번 2차 공모가 1차 공모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 많은 맞춤형 훈련과정을 발굴하고, 지역 산업계의 인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인자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의 훈련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M&A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따라… 새 모델로 부각

중기부,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 대응… 특별법 제정 등 정책 기반 강화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제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CEO가 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 전체 1/3(2012년 14.1% → 20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 증기금 내에 ‘M&A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 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M&A 파트너스 네트워크 구축, △M&A 보증, △기술보호(TIRS 등) 등 원활한 제3자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I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는 M&A 협상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대비한 증거자료 확보 서비스 제공한다.

그 결과 지난달 기업승계형 M&A 2건을 성사시켰다. 해당 기업 모두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의 고령 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A사는 2002년 설립해 23년간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동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기업을 매각하였다. B사는 2000년부터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가 자녀 승계가 어려워,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은 M&A 파인수 기업과 인수회합 기업의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M&A 컨설팅을 제공했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M&A 성사를 뒷받침하였다.

두 기업 모두 M&A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했음은 물론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자녀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M&A 방식 기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公, ‘선제적 녹조 대응’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박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 녹조 대응’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짧은 장맛비 이후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물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많아 녹조가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

공사는 녹조 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예찰부터 제거에 이르는 선제적 녹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6월부터 8월까지를 ‘녹조 예찰 강화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전국 354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90개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아이오티) 센서를 설치해 수온, 탁도, 오염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이를 통해 녹조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녹조가 확인되면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며, 화학적 제거와 물리적 차단을 병행해 녹조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페놀화합물, ‘적색 잎상추’에 최대 3배 높아

농진청, 한국인 섭취 농식품 대상 기능 성분 소개

농촌진흥청은 상추에 염증, 당뇨 등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페놀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은 식품 대부분에 존재하며,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필수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추에 페놀화합물이 다량 함유돼 있어 영양 공급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페놀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상추 추출물은 세포 또는 동물 실험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염, 항당뇨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됐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연구진은 상추 추출물 분석 기술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청색 잎상추’, ‘적색 잎상추’, ‘적꽃상추’ 등 상추 6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퀘르세틴 3-O-malonyl(gluco)side, 치코르산(chlorogenic acid), 이소클로로젠산 에이(isochlorogenic acid A)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총 30종의 페놀화합물 유도체가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퀘르세틴 다 이글루코사이드(queretin 3,7-di-O-



glucoside), 클로로젠산 메틸에스터(chlorogenic acid methyl ester) 등 6종의 페놀화합물은 세계 최초로 상추에서 확인됐다.

상추 6종에 함유된 페놀화합물은 크게 플라보노이드(24~240.7mg), 페놀산(11.7~361.8mg), 안토시아닌(0~22.4mg)으로 구성돼 있다. 생체중량 기준 총합량은 14.1~595.3m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색 잎상추’의 페놀화합물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적색 상추 4종이 청색 잎상추에 비해 약 1.1~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 전문 학술지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오상근기자

도내 수산기업과 소비자 점점 강화

바이오진흥원, 수원 팔도밥상페어에서 수산식품 우수성 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수원 팔도밥상페어’에 참여해 도내 해양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대상 만족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젓갈, 장류, 건어물, 수산 가공식품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이 다수 전시되었고, 현장 시식행사 및 제품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의 품질과 맛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매와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향후 재구매 의사도 확인되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유통 가능성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팔도밥상페어 행사 기간 동안 현장 판매액은 7천5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단순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반응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 성과로 평가된다.

행사에 참가한 (유)하이오백 대표는



“소비자들과 직접 마주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 현장에서 받은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판매 성과도 만족스러워 제품 경쟁력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수원 팔도밥상페어 참가는 전북 해양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검증받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박람회, 판촉행사, 유통 연계 사업 등을 통해 도내 수산식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